

대부분의 意思決定過程에서 여러가지 가능한 事象이나 몇 가지 대립된 假說들에 대한 確率을 推定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意思決定者나 혹은 專門家の 主觀的 判斷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에 제기되는 자연스러운 질문중에 하나가 "과연 이러한 主觀的 判斷이 얼마나 正確한가?"하는 것이다.

理論적으로는 철저한 主觀確率論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確率이란 주어진 假說의 眞爲에 대한 不確実性を 數值化한 것에 불과하므로, 確率은 "옳다" "그르다" 거나 "중다" "나쁘다" 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主觀的으로 確率값이 주어진 假說들의 眞爲를 실제로 가려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그러한 確率判定이 얼마나 正確한지의 與否를 客觀的으로 測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상이 일어날 確率을 0.9라고 判定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事象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때, 이 確率값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0.9라는 確率은 주어진 1000개의 假說에 대해 그 眞爲를 알아 보았을 때 실제로 그 중 60%만이 옳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確率값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正確히" 確率을 判定할 수 있는 사람 (well calibrated person)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90% 정도의 假說이 옳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直觀的 確率判定이 calibration 이라는 面에서 얼마나 正確한가 하는 문제를 여러가지 다른 상황에서 實驗心理學的 方法을 통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結果를 간략히 소개하고 몇 가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現象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